

## 성루에 서서

하박국 2:1-4

1. 예언자는 남유다에 가득한 사회적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갈대아인들로 유다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부패한 자국민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로운 경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2장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이어집니다. 아래의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1.1. (관찰) 1절은 답변을 기다리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 2: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 )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 ) ( )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1.2. (관찰) 구체적인 대답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 2:2 ...이 목시를 ( )하여 판에 명백히 ( ) 달려가면서도 ( )있게 하라
- 2:3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 )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3. (나눔1)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위해 질문하지만, 우리는 믿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의 질문은 거칠지만 긍정적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근거를 둔, 소망을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붙들고 긴 시간 씨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나누어봅시다.

1.4. (나눔2)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 중인 소망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나누어봅시다.

2. 4절부터 구체적으로 답변이 시작됩니다. 20절까지 저주신탁의 형태로, 결국 불의한 자는 그것이 유대인이건 바벨론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정의가 선언됩니다. 아래 구절들을 찾아봅시다.

2.1. (관찰)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 2:6b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 )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 )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 )을 당하지 않겠느냐...
- 2.16b ...여호와와 ( )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 2:17c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 )

**2.2. (관찰) 저주 신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2: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 )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 )이 아니라

**2.3. (나눔3) 4절의 '그의 믿음'은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행되니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2:20). 결국 반드시 죽어야 할 악인은 죽고, 의인은 죽어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끝에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의 비전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아도 인내하며 정의의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0-58절을 돌아가며 읽은 후, 종말론적 비전의 신앙으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 지 나누어봅시다.

**㉞ 함께 기도**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